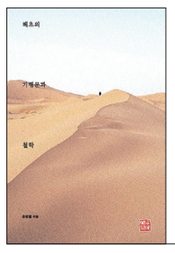
철학의 눈으로 본 '왕오천축국전'



혜초의 기행문과 철학
윤병렬 지음
소명출판 / 1만9천원

문헌학 · 서지학 넘어선 새로운 연구
"혜초의 진면목 텍스트 밖에 있어"
기존 연구 바탕에 철학적 세계로
구법여행 속의 철학적 사유 조명
하이데거 통해 혜초 기행문 해석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그 경이로운 문장에서 '철학'을 읽는다. 책 〈혜초의 기행문과 철학〉은 혜초의 여행, 그리고 그가 남긴 〈왕오천축국전〉을 철학의 눈으로 바라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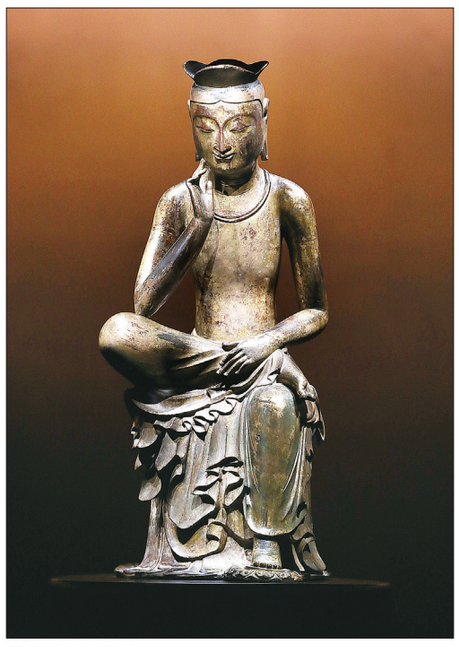
혜초는 열다섯 살이란 어린 나이에 신라를 떠나 당나라 광저우로 들어간 뒤 열아홉의 나이에 인도(오천축국)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아랍 및 페르시아 그리고 히말라야의 여러 나라들을 걸어서 다녀왔다. 그리고 그는 그 여행을 기록으로 남겼다. 〈왕오천축국전〉이다.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 4대 여행기 중 가장 오래된 〈왕오천축국전〉은 신라의 승려 혜초가 4년(723~727) 동안 인도를 비롯한 40여 개국 2만km를 도보로 여행하면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1200년 동안 중국 돈황의 천불동에 있었는데, 1908년 프랑스 동양학자인 펠리오가 발견했다.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원본에 대한 고증과 주석 및 번역작업, 나아가 혜초의 전기와 그가 여행한 나라들, 특히 8세기의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관련된 기행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번 책에서는 혜초의 여행기를 독해함에 있어 문헌학과 서지학의 차원을 넘어선다.

혜초의 기행문에는 그가 여행한 곳의 지리, 정치, 종교, 경제적 상황, 생활양식, 문화, 언어 등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더욱이 혜초 당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교역로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말하자면 〈왕오천축국전〉은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정치·국제정세·지리적 상황, 사회·문화·종교·경제적 상황 등을 담고 있는 유일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기행문에는 인도뿐만 아랍과 페르시아의 사회적 정황들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혜초는 승려의 관점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문명탐험가의 모습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결국 혜초는 8세기의 인도, 중앙아시아, 아랍, 페르시아, 히말라야 산맥 주변의 부족들의 삶의 양식과 당대 세계의 다양한 정신을 탐험하고 기록한 한국인이었다. 이런 점에서 책 〈혜초의 기행문과 철학〉에서는 기존의 시각들과는 달리, '문명탐험가' 및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혜초를 이야기한다.



금동반가사유상.

저자는 "혜초를 읽으려면 텍스트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혜초의 진면목은 텍스트 밖에 있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이 동반된 피안 구법여행은 텍스트 밖에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 밖에서 인간의 한계와 시·공의 한계를 초월한 피안여행을 읽지 못한다면 결코 '혜초'를 읽지 못한다는 것이다.

책 〈혜초의 기행문과 철학〉은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소 낯선 영역, 즉 철학적 세계로 나아간다. 저자는 책에서 혜초의 깨달음을 향한 구법여행에 동반된 철학적 사유를 조명한다. 혜초에게서 온갖 고행을 기꺼이 감내하고 경계를 허물면서 쟁취하는 해탈과 자유가 개시되기에 저자는 책의 제목에 '철학'이란 용어를 붙였다.

〈왕오천축국전〉에는 혜초의 인생과 철학, 역사와 지리, 문화와 문학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가 감행했던 순례여행은 깨달음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철학(사유와 인식과 존재론)과 결부된다는 것이 책의 핵심이다.

경계를 넘는 것을 철학적 용어로는 초월이며, 혜초는 이 초월을 여행을 통해 몸소 실천했다. 따라서 혜초의 여행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허물면서 해탈의 자유와 기쁨을 구체적으로 펼쳐 보인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다. 이 해탈과 자유야말로 모든 고등종교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혜초가 이룩한 해탈은 그 어떤 정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온몸이 투입된 구법여행 내지 피안여행으로 성취한 것이다. 혜초의 여행은 단순한 답사여행이나 의례적인 순례여행이 아니라, 차안의 세계와 '신화적 작별'을 하고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숨을 건 피안여행, 즉 철학적 초월을 위한 여행이었다. 저자는 혜초의 온 마음과 몸을 던진 순례여행 내지 구법여행이 자신이 철학에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의 여정과 많이 닮아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자신이 전공한 서양의 하이데거 철학을 통해서 혜초의 기행문을 철학적 지평 위에서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다. 책에서는 혜초의 구법여행과 기행문을 하이데거의 '현 사실성의 해석학'과 '존재사유'에 입각하여 재조명했다. 동양에서의 깨달음은 그것에 도달한 사람의 존재에 심층적 변화가 일어남을 전제한다. 여기서는 혜초의 한계를 초월한 경험과 하이데거의 존재경험의 친연성을 밝힌다. 이런 저자의 상호문화적 비교철학의 시도는 독보적이고 창발적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서양철학의 도구를 통해 혜초의 기행문에 담겨있는 철학의 다원적 보편성을 재발견한 독창적인 연구 성과물이다.

골동의 매력…슬기로운 골동생활



골동골동한 나날
박영빈 지음
문학수첩 / 1만7천원

자신을 '골동 덕후' '프로 골동러'라고 부르는 한 수집가가 골동품 수집기 〈골동골동한 나날〉을 출간했다. SNS에서 '연근들깨무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저자 박영빈은 책에서 골동품을 수집하게 된 이야기와 지금까지 모아온 골동품들, 그것들을 수집하면서 겪은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맺게 된 인연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소개한다.

저자는 어느 날 후배와 동행한 모처의 골동품점에서 작은 불상 한 점을 보게 된다. 골동품점 사장은 별 것 아니라며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투로 말한다. 그래도 저자는 왠지 불상에 마음이 끌렸다. 구석진 선반에서 불상을 내려 가까이서 보니 불상의 모습은 처참했다. 불상 전체에는 정체불명의 금빛 도료가 지저분하게 칠해져 있었고, 상호에는 유성펜으로 보이는 것으로 눈과 눈썹을 그리고, 입술은 새빨간 색으로 흉하게 그려져 있었다. 골동품점 사장의 '석고불상'이라는 말에 실망한 저자 일행은 다른 곳의 고미술상으로 발길을 돌린다. 동행했던 후배는 두고 온 불상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결국 후배가 되돌아가 불상을 구입해 돌아온다. 저자는 불상의 더러운 칠들을 닦아내는 과정에서 불상이 색난 스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불상은 조선 후기 활동했던 색난 스님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저자는 깨끗해진 불상의 입가에서 '조선의 미소'를 보았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보면서 서로 오랫동안 기다린 만남 같았다고도 적고 있다. 이후 불상은 문화재수리기능공을 통해 제대로 된 보존 처리를 거쳤다고 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골동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골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 즉 어떤 물건을 '골동'이라고 부르는지 그 정의와 범위를 짚어준다. △1장과 2장 사이의 '여기서 잠깐, 골동 정리 좀 하고 갑시다!'에서는 저자가 애정을 가지고 수집하는 유물들과 골동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골동을 수집하면서 겪은 일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고 자랑하고 싶은 몇몇 썰'(90쪽)을 풀어본다.

△3장에서는 골동으로 엮인 여러 인연과 골동을 곁에 두고 사는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찻자리를 시작으로 함께 모여 조선 초기 의복을 재현하거나 진짜 대모로 거문고를 장식하는 등 전통공예와 옛 것에 대한 사랑으로 뭉친 사람들, 그리고 자주 찾고 종종 조언을 얻기도 하는 단골 골동가게 사장과의 인연담도 소개한다.

그 밖에도 골동을 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판매처와 각각의 장단점,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법, 유물에 걸 맞는 수리 기법 등 골동 또는 골동 수집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도 소개한다. 박영빈의 '슬기로운 골동생활'이다.

박재완 기자

행복 위한 지혜, 과연 무엇인가?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이필원 장진영
김호귀 이진우 권석만 집필
운주사 / 2만5천원

안팎으로 복잡다단해진 세상에서 인간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간이면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문제이다. 그 '어떻게'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운주사의 밝은사람들 총서 19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는 그 지혜에 대한 탐구다. 초기불교 분야에서의 지혜는 이필원 교수가 '지혜, 생각의 경계 너머'라는 제목의 글에서 논하고 있다. 그는 초기불교에서 지혜는 '생각을 통해서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대승불교 분야에서의 지혜는 장진영 교무가 '대승의 지혜, 정지(正智)와 본지(本知)의 조화'에서 다루고 있다.

선불교 분야에서의 지혜는 김호귀 교수가 다룬다. '자성의 자각과 그 활용'에서 김 교수는 선문답에 있어 지혜의 역할이 무엇인지, 선지식이 납자의 깨달음을 인가하고 전법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선불교에서 지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서양철학 분야에서의 지혜는 이진우 교수의 '인공지능 시대의 지혜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뤄진다.

심리학 분야에서의 지혜는 권석만 교수가 '지혜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현대의 심리학이 지혜를 어떻게 실증적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심리학에서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의 두 유형을 소개한다.

책은 인간이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지혜를 강조하고 지혜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불교를 비롯한 각 전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지혜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불자들이 주고받는 품격 있는 선물!

40년 전통, 불서출판의 명가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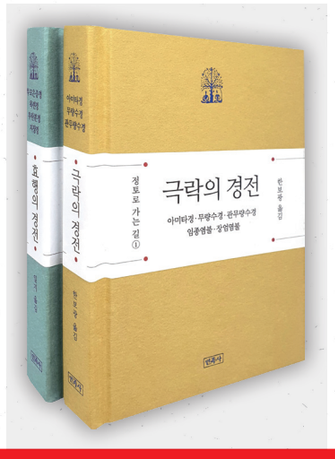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법보시야 말로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